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7호 2004년 1월 15 (목)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중소기업 기술력, 세계 최고기술의 73.6% 수준

중기청은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기술수준 향상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4,564개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의 애로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기술경쟁력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인식을 보면 국내 중소제조업이 보유한 기술(8가지 기술능력)수준은 세계최고수준(100기준)대비 73.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첨단기술업종은 78.8% 수준으로 지속적 기술혁신을 추진하면 중소제조업이 2008년에는 80%선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조능력은 78.4%로 높은 반면, 상품기획능력(68.1%)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대하여는 71.8%, 일본에 대하여는 73.5% 그리고 유럽에 비하여는 56.8%가 기술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응답하고, 기술격차는 미국, 일본에 1.7년, 유럽에는 1.0년 뒤져 있고, 중국에 대하여는 94.3%가 우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02년을 기준하여 조사한 기술개발 실적과 수준 등을 보면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 비율은 3.5%, 기업평균 2억 8백만원, 연구원 1인당 6천 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유기술의 신규성은 세계최초 개발기술 보유 기업은 8.8%(사업서비스업 15.8%)에 불과하고, 국내 및 신흥공업국에 보편화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4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 애로요인으로는 ①자금부족, ②개발인력 확보 곤란, ③연구설비 및 기자재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개발전문인력 부족률은 20.9% 수준으로 고급인력일수록 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 36.7%, 석사 27.3%)

▶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042-481-4435)

200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시

중기청은 2.4조원 수준의 200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12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5개) 등에서 일제히 신청·접수를 받는다.

* 소상공인창업자금은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금년도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2조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 등 총 8개 자금 2.4조원으로 운영되며

지원업종은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이다.

대출조건은 자금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출금리는 크게 4.9% 또는 5.9%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설자금은 8년(3년거치), 기타자금은 5년(2년 거치) 또는 3년(1년거치)의 장기간으로 지원된다.(자금별 특성에 따라 다소간 차이)

금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자금 지원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자금 구조의 개편으로 지식서비스육성자금 등이 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 통합(10종→8종)되고 순수한 운전자금 성격의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나

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5천억원 규모의 소기업 특별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은 구체적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2월부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04년 정책자금 심사평가방식을 기존의 사업별 점수제(Scoring)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업별 등급제(Rating)로 전환하여

재무상태 위주 평가에서 미래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비재무평가 비중을 강화하여 적용키로 하였다

특히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그러나, 중진공 신용평가 A등급인 극히 우량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여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지원기회를 확대하였다.

정책자금 지원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자가진단, 신청·접수, 금융여신거래확인서의 전자화, 전자보증서 발급제도 도입 등으로 정책자금 신청에서 대출시까지 One-Process로 이루어지는 대출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대출금의 상환방식을 획일적 균등상환에서 업종 및 업체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월별, 체증식, 매출액 변동을 고려하는 다양한 상환방식을 상반기중 시범운영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업성장국
금융지원과
(042-481-4377)

주요 리딩벤처기업 크게 성장

전반적인 벤처산업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 지향의 선도적인 벤처기업들은 꾸준히 성장되고 있다.

중기청은 국내 주요 벤처기업별로 2003년 한해 동안의 매출과 수출액, 주식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등을 조사한 결과 수출중심의 IT벤처기업들이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기준) 수출을 가장 많이 한 업체는 3억9천3백만달러어치를 내보낸 팬택이었다. 매출규모면에서는 어필텔레콤이 6,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의 시가총액은 엔씨소프트가 1조 2,412억원으로 최상위를 차지했다.

엔씨소프트는 업계전체의 시가총액 순위에서 대한항공, 쌍용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한 34위로 나타났으며 시가총액 100대

기업중에는 벤처기업이 12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선도벤처기업들은 매출과 수출, 시가총액면에서 삼성전자의 1.6~1.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들 선도 벤처기업 50~60개를 육성하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맞먹는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394)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 높아

중기청은 전국 289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성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기준 총 4천 884개의 보육실중 4천 270개가 운영돼 운영률이 지난 2002년 86.7%에서 87.4%로 높아졌으며 입주기업수는 3천717개에서

4천20개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 1-10월 입주기업이 등록한 지적재산권은 총 3천909건, 매출액은 9천 31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를 졸업한 기업수는 지난 202년 1천577개에서 지난해 1-10월 2천849개로 늘었으며 졸업기업의 72.6%인 2천67개사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의료, 바이오 등 첨단특화분야 기업에 대해 센터입주기간(현행 3년이내)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일기관이 동일지역에 운영하는 2개 이상의 창업보육센터를 통합하는 등 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창업벤처국
소기업창업과
(042-481-4410)

중기청 조직, 성장단계별 지원체제로 개편

중기청은 1.13일 행정혁신기능을 강화하고, 창업기능을 활성화하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을 증진시키고, 중소제조업의 공동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창업부터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하여局的 우선순위를 중소기업정책국, 창업벤처국, 기업성장국, 기술지원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해외사장과를 신설하였다.

▶ 기획관리관실
혁신담당관
(042-481-4357)

< 조직 개편내용 >

□ 기획관리관 (4)

- 기획예산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비상계획담당관

➡ □ 기획관리관 (4)

- 혁신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비상계획담당관

□ 중소기업정책국 (4)

- 정책총괄과
- 기업진흥과
- 소기업과
- 조사평가과

➡ □ 중소기업정책국 (4)

- 정책총괄과
- 기업환경개선과
- 지식서비스기업과
- 정책평가과

□ 벤처기업국 (3)

- 벤처정책과
- 벤처진흥과
- 창업지원과

➡ □ 창업벤처국 (3)

- 창업벤처정책과
- 벤처진흥과
- 소기업창업과

□ 경영지원국 (4)

- 자금지원과
- 인력지원과
- 판로지원과
- 정보화지원과

➡ □ 기업성장지원국 (4)

- 금융지원과
- 인력지원과
- 판로지원과
- 해외시장과

□ 기술지원국 (3)

- 기술정책과
- 기술개발과
- 기술지도과

➡ □ 기술지원국 (4)

- 기술정책과
- 기술개발과
- 시험평가과
- 기업정보화과